

여름철 수태지 관리 잘해야 가을철 번식 성적 높아진다

-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가을철 돼지 임신율 저하 원인
- 폭염 이후 6~8주간 집중 관리 필요
- 수태지 건강·환경 관리, 정액 채취 시 위생·보관 관리 함께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여름철 폭염으로 수태지 정액 품질이 떨어지면 가을철 임신율(수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온기 수태지 관리와 정액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돼지 인공수정 성적은 수태지의 건강 상태, 영양 수준, 정액 품질, 채취·보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는 정자 운동성, 생존성, 정상 정자 비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온 스트레스 영향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액 품질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폭염 이후 6~8주 동안 정액량과 정자 운동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8월 더위는 9~10월 임신율 저하와 재발정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

△ 수태지 건강·환경 관리

후보 수태지는 생후 6~7개월 무렵 성적 성숙이 진행되지만, 실제 번식 활용은 체형과 정액 상태 등을 확인한 뒤 8개월령 이후 시작하길 권장한다. 잦은 정액 채취는 정액량과 정자 수 감소를 유발하므로, 일정한 채취 간격을 유지한다.

농가에서는 돼지 사육 공간(돈방) 온도와 환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송풍기와 환기팬,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충분한 물을 공급 하고, 사료 섭취량 감소와 체형 변화도 함께 살핀다.

지나치게 살이 찌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번식 행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영양이 부족하면 정액 생산과 정자 활력이 낮아질 수 있다. 번식용 수태지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광물질 등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것이 좋다.

△ 정액 채취 시 위생 관리

정액이 세균에 오염되면 정자 운동성과 생존성이 떨어지고, 어미돼지 생식기 질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채취 전에는 수태지 하복부와 포피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채취 컵과 검사 기구는 세척·소독·건조한 뒤 사용한다. 정액 채취실과 보관 시설도 자주 청소하고 소독한다.


△ 정액 관리

인공수정용 액상 정액은 전용 보관고에서 17~18도로 보관한다. 보관 온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정자 운동성과 생존성이 떨어진다. 20도 이상에서는 정자 대사 활동이 증가해 보존 기간이 짧아진다.

농장에 정액이 도착하면 즉시 전용 보관고에 넣고, 사용 전 색과 냄새, 침전 여부, 유통기한, 보관 온도 기록 등을 확인한다. 돼지 교배 공간(교배사)으로 이동할 때는 보온 상자를 이용해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양돈과장은 “여름철 수태지 건강과 위생, 정액 보관 온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가을철 수태율 저하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붙임. 돼지 인공수정 성적 향상을 위한 점검표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1-580-3440)
		담당자	연구사	백선영 (041-580-3445)
				

□ 수태지 이용 시기와 상태

- 후보 수태지의 월령, 체중, 체형 상태를 확인했는가?
- 다리·발굽 이상, 절음, 외상은 없는가?
- 성욕과 승가 행동이 정상적인가?
- 정액량, 정자 운동성, 기형률 등 정액 성상을 확인했는가?
- 어린 수태지에 과도한 채취를 하지 않는가?
- 고온기에는 채취와 훈련을 비교적 시원한 시간대에 실시하는가?

□ 고온기 수태지 환경 관리

- 수태지 돈방의 최고·최저 온도를 매일 기록하는가?
- 송풍기, 환기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차광시설 등 냉방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가?
- 시원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이 확보돼 있는가?
- 급수기 수압과 유량을 점검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가?
- 고온 스트레스 이후 6~8주 동안 정액 성상을 강화해 점검하는가?

□ 영양·사양 관리

- 체중, 체형, 채취 횟수에 맞춰 사료 급여량을 조절하는가?
- 고온기에 사료 섭취량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가?
- 정기적으로 체형 상태와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가?

□ 위생 관리

- 채취 전 수태지 하복부와 포피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가?
- 포피 입구 주변 털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가?
- 채취자는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는가?
- 채취 컵과 희석·검사 기구는 소독·건조 후 사용하는가?
- 정액 채취실, 제조실, 의빈대, 보관고를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가?
- 여름철에는 채취실과 제조실의 위생 점검 횟수를 늘리는가?

□ 정액 보관과 사용

- 정액 전용 보관고를 사용하는가?
- 보관 온도를 17~18℃로 유지하는가?
- 보관고 안에 온도계를 두고 기록을 확인하는가?
- 정액을 교배사로 옮길 때 보온상자를 사용하는가?
- 사용 전 색, 냄새, 침전, 유통기한, 보관 온도를 확인하는가?
- 이상 정액은 사용하지 않고 공급처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하는가?

□ 가을철 번식성적 추적 관리

- 여름철 폭염일과 돈방 최고온도를 기록했는가?
- 수태지별 정액 검사 결과와 교배 성적을 함께 관리하는가?
- 9~10월 재발정률, 수태율, 산자수 변화를 확인하는가?
- 번식 성적 저하 시 암태지 요인뿐만 아니라 수태지·정액 요인도 함께 점검하는가?
- 고온 피해가 의심되는 수태지의 정액은 일정 기간 사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가?